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생성형 AI 시대' 조직혁신 나선다

박나라 기자 | 승인 2025.10.21 19:21

미래전략아카데미 통해 기술 패러다임 변화 대응... AI 기반 행정혁신·역량 강화 추진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혁신에 나섰다.

21일 진행한 '본부 현안점검회의'와 '미래전략 아카데미'

충남본부는 21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현안점검회의'와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연이어 개최하며, AI 기반 행정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미래 인사이트와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본부장과 13개 지사장, 내근부장,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융합경영학과 오상진 교수가 맡아 '생성형 AI 시대, 변화와 혁신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연중인 오상진 교수

오 교수는 "AI 기술 패러다임이 기존 자동화에서 'AX(Algorithmic Transformation)'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기술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 혁신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사고와 AI 리터러시(활용역량)가 향후 공공행정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남본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직원들이 AI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체계 확립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본부는 이날 오전 '본부 현안점검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영과제와 지사별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을 보탰다.

이민수 본부장은 "AI 혁신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과제"라며 "직원들이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습과 소통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나라 기자 nara79@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